

| | | | | | | | |
|-------------------------|------|-----------------|----|---------------|------|---------------------|-----|
| •대문 글 | 1면 | •사서선생님 눈에 들어온 책 | 6면 | •신나는 글나라 놀이터 | 8·9면 | •도서관 소식 | 11면 |
| •수다쟁이 책마녀가 들려주는 책나라 이야기 | 2·3면 | •삼도리 이야기 | 7면 | •엄마표 요리나라 이야기 | 10면 | •내가 만드는 그림책 | 12면 |
| •만나고 싶었어요 | 4·5면 | •우리 동네 옛 이야기 | 7면 | •영화속 도서관 이야기 | 10면 | •수다쟁이 책마녀의 고짜 독서골든벨 | 12면 |



장유어린이신문 4호

포근
끼낫

봄은 참 특별한 계절입니다.
 봄만큼 새로운 느낌을 주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새 학기, 새 친구, 새 책, 새 잎..
 또 봄만큼 그 자체로 특별한 느낌을 주는 말도 없지요.
 봄비, 봄 햇살, 봄내음, 봄나들이..

봄은 참 경쾌한 계절입니다.
 반짝반짝, 뽕송뽕송, 사뿐사뿐, 나풀나풀..
 왠지 모를 생동감과 화사함 덕분에
 온 세상이 향긋하게 활짝 피어나네요.

봄은 참 반가운 계절입니다.
 추운 동안 움크렸던 어깨가 펴지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준비는 돌아오니 까요.
 참, 그리고 무엇보다 새콤달콤 맛있는 딸기도 한창입니다!!

이렇게 포근하고 따뜻하고 감지럽고 들뜨는 봄날,
 개나리와 산수유꽃, 벚꽃 나무가 그득한
 도서관의 봄향기도 나눠 갖지 않을까요?



수다쟁이 책마녀가 들려주는 책나라 이야기

안녕? 이 책마녀께서 얼마 전 빗자루 타고 너희 동네 하늘을 날며 장난 좀 쳤는데 그 장난이 뭐였게? 알록달록 새콤달콤 봄가락을 뿌렸지롱! 어서 창문을 열고 여기저기 잘 살펴봐. 그리고 코를 벌렁거리며 쿵쿵거리려 봐. 내가 뿌린 봄가락 색깔과 냄새가 느껴질 거야. 여기저기 봄꽃들은 얼굴을 내밀었고, 어디선가 상큼한 봄 냄새는 술술 풍겨오지? 그런데 아직도 춥다고 내복 끼입고 늦잠 자고 있는 곰탱이같은 친구가 있으면 어서 어서 깨어나시오! 싱싱한 책마녀랑 신나는 봄나들이 비행을 떠나 보자구.

오케이? 씩씩!



by ㅁㅁ

에구에구, 봄기운에 추방해 어디로 갈지 정하지도 않고 날아와 버렸네. 어쩌지? 음... 어디로 가야할지 모를 때 쓰는 가장 좋은 마법을 부려야겠군. 첫째 손바닥을 편다, 둘째 손바닥에 힘을 뺏는다, 셋째 다른 손의 손가락으로 내려친다, 넷째 침이 튀어나간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훌륭한 마법을 알려주면 안 되는데 너희들은 나의 베스트 프렌드(베스트 프렌드)니까 이 정도 관찰했지. 아, 그런데 이 마법은 주의할 점이 있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나 몸쪽으로 침이 튀면 무조건 삼십육계 줄행랑을 쳐야해. 불행하게도 달리기 실력이 신동 참다면 발이 손이 되도록 빌어야 하구. 꼭 명심할 것!!



1. 『유령이 된 할아버지』 김 푸브 오케손 글, 에바 에릭손 그림, 김영선 옮김, 소년한길

에스본에게는 단짝 친구가 있어. 바로 자기 할아버지야. 그런데 심장병으로 길을 가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엄마는 할아버지가 하늘나라 천사가 되었다고 하고 이쁜 땅 속에 들어가 흙이 될 거라고 말해. 에스본은 그 말들을 믿을 수가 없었지. 그리고 그날 밤 할아버지가 에스본 방에 나타나. 나라면 비명도 못 지르고 피당 뒤로 넘어졌을텐데 에스본은 굉장히 침착해 할아버지가 유령인지 확인해 보려고 벽을 뚫고 다녀보라고 하고 귀신 소리도 내보라고 해. 정말 대단하지?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끝내지 못한 일이 있어서 유령이 되었다고 하셔. 도대체 할아버지가 마무리짓지 못한 일은 뭘까? 궁금하면 계속 책장을 넘겨 보게!



2. 『오래 슬퍼하지마』 글렌 링트베드 글, 샬로테 파르디 그림, 안미란 옮김, 느림보

식탁 끝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앉아 있어. 망토에 가려져서 날카로운 코만 삐죽 나온 얼굴은 오싹하기까지 해. 문 밖엔 이 사람이 가져온 커다란 낫도 있어. 이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죽음'이야. 그럼 누굴 데리러 온 걸까. 식탁에 같이 앉아 있는 꼬맹이들은 아닐테고 위층에 계신 할머니를 데리러 온 거였어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든 죽음이 할머니를 못 데려가도록 시간을 끌지만 죽음은 조용히 이야기 하나를 들려준다. 그건 슬픔이와 기쁨이, 눈물과 웃음의 이야기였지 하나만 있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들-밤과 아침, 행복과 불행, 삶과 죽음- 모두 함께 있어야 하는 것들이지. 어려워서 모두 이해할 순 없지만 죽음의 이야기긴 맞는 말이야.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공부 못하는 친구와 비교하기 때문이고, 실아서 숨 쉰다는 사실은 언젠가 숨을 멈추고 죽는다는 말이기도 하지. 불행이나 행복 중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봐. 과연 우리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느낄 수 있을까? 아마도 없을거야. 같이 있어야만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삶과 죽음이란 얘기! 분리 수술이 불가능한 삼쌍둥이 짝, 이해하기 힘들면 햄버거 세트 메뉴라고 생각해

책마녀의 침이 날아간 방향은 북쪽이야. 잉? 이런 화창한 봄날에 겨울이 날아간 곳으로 따라가야하더니. 그래도 이 마법에 사용된 책마녀의 침을 무시하면 안 되니까 함께 가보자구. 북쪽 어둡고 서늘한 책의 골짜기로, 준비됐지? 출발이다!! (이런 줄 알았으면 계속 내복 입고 있을걸.)



by ㅁㅁ



3.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 울프 날손글, 에바 에릭손_그림, 임정희_옮김, 시공주니어

표지를 보니 이 책은 세 명의 아이들이 나올 건가봐. 남자아이 둘에 키 큰 여자애 한 명. 역시나! 금발에 주근깨 얼굴의 여자애는 싹싹한 에스테르야. 그 옆에 있는 소심해 보이는 남자애는 겁이 많아. 특히 죽는다는 걸 무서워해. 죽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사실 나도 무섭긴해. 천 살까지 살면 안 될까? 그러면 죽음이 무섭지 않을까? 아, 모르겠다.

여하튼 이 책에 나오는 마지막 꼬마 애는 에스테르 동생인데 아직 죽음이 뭔지 잘 몰라. 아무리 설명해 줘도 죽음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린 그런 꼬맹이지.

세 명은 장례식 회사를 차려서 죽은 동물들의 무덤을 만들어 줘. 가장 웃긴 장례식은 냉장고 안에 있던 청어 세 마리를 꺼내 묻어주는 거였어. 저녁 반찬거리가 없어진 걸 보고 엄마는 뭐라고 하실까? 상상만 해도 무지 웃기지?(아마도 빗자루 몽둥이로 맞지 않았을까? 킁킁~)



4. 『별이 되고 싶어』 이민희글·그림, 창비

너희 죽어서 뭐가 되고 싶어?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할 어린이들에게 웬 불길한 질문이냐구? 맞는 말이야. 차라리 “넌 커서 어떤 사람이 될래?”, “너의 꿈은 뭐니?” 라고 물어야 정상이지. 하지만 꼭 노인들만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

바다만 바라보며 지란 아이는 늘 감사하며 살다가 바다가 되었다. 나무숲을 뛰어다니며 지란 아이는 용감하게 살다가 나무가 되었다. 불꽃처럼 이름 다웠던 아이는 베풀며 살다가 더 아름다운 불꽃이 되었다. 초원에서 태어나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았던 아이는 바람이 되었다는데 흠을 밟고 지란 만하는 땀 흘리며 농사짓다가 무엇이 되었을까?

이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무엇이 되어 이 땅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돼. 살아서가 아니라 죽어서 말이야. 물론 살아있을 때와 죽은 뒤의 무엇이든 꼭 닮은 모습이지. 한 번 쫄음을 감고 생각해보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지. 우울하지 않고 쿨하게 말이야.



5. 『코끼리의 등』 아키토 아스시글, 아미나가 이즈루_그림, 엄혜숙_옮김, 보물상자

아기 코끼리 뽀뽀는 한밤중에 어딘가로 가는 아빠를 몰래 따라가. 숲을 지나 처음 보는 강으로 가는 아빠. 그리고 땅을 파서 무언가를 묻어. 다음 날 밤에도 아빠는 혼자 어딘가로 나가서 호기심 많은 뽀뽀는 또 몰래 따라 가지. 푸른 풀이 우거진 들판을 지나 산 쪽의 동굴까지 가서 땅을 파는 아빠. 그렇게 밤마다 아빠 뒤를 따라 다니던 뽀뽀는 어느 날 아빠에게 들리고 말아. 뽀뽀는 잘못을 빌지. 하지만 아빠는 빙긋 웃으며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고 해.

아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야 한대. 그곳엔 아무도 데려 갈 수 없대. 뽀뽀는 눈물이 났지.

아빠 죽을 거래. 코끼리는 언제 죽을지 알기 때문에 떠나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뽀뽀 곁에 있을 거라는 아빠의 말이 믿어지지 않아.

그렇게 아빠는 숲을 향해 걸어갔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지.

며칠이 지나 뽀뽀는 아빠가 갔던 곳에 혼자 가 보. 아빠가 그림기도 하고

무엇을 묻어 두었는지 궁금하기도 했거든.

어떤 것이 묻혀 있을까? 무지 궁금하지? 하하하!

바로 이런 대목이 책마녀의 심통이 작동되는 포인트 아니겠어?

궁금하면 찾아 읽으셔.

(메롱!! 약 오르지롱. 나는 아는데~ 나는 아는데~ 너희들은 모르지롱! 궁금하지롱!)



약 올리는데 정신이 팔려서 죽음의 책 골짜기를 벌써 빠져 나와 버렸구나. 그런데 여긴 왜 이리 환상. 이! 정말 눈부시다. 빗자루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본 햇살보다 지금의 햇살이 더 강렬하게 느껴져. 분명 똑같은 4월의 햇살인데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네. 여하튼 이제 힘들게 책 나라 죽음 골짜기로 여행을 다녀왔으니 간단한 시험 한 번 쳐볼까? 뭐야, 시험이 있는 줄 몰랐다고? 이런 구차한 변명이 책마녀에게 통할 것 같으냐? 턱도 없는 얘기지. 모두 조용히 하고 질문을 잘 들길 바란다.

1. 장례식 때 흰색이나 검정색 옷만 입는 것 같더라. 왜 그럴까?

2. 만약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디가 더 복잡할까?

엄마한테 물어볼 생각은 애시당초 하지말어. 책마녀의 레이더망은 어디에든 있으니까 혼자 곰곰이 잘 생각해봐.

너희들이 시험문제에 골머리 썩고 있는 동안 이 책마녀는 봄소풍이나 준비해야지. 난 심술쟁이 책마녀니까. 그런데 벌써 이 완벽한 책마녀랑 헤어질 시간이 왔어. 벌써 책마녀가 보고 싶다고 우는 친구가 있네. 걱정 말아. 이 책마녀는 너희들을 골려주러 곧! 가 급격 빨리! 썩망니! 다시 올 거니까 그 때까지 모두 안녕!





천천히, 오랫동안, 여러 번 바라보기
그렇게 알게 되고, 친해지고, 좋아하게 되는
'관찰'의 즐거움을 알려주신 선생님!!

『물은 어디서 왔을까?』 & 『여름이의 개울 관찰 일기』의 작가 신동경 선생님편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 장유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 김은엽이라고 합니다.

4월 도서관주간을 맞아 먼 길 기쁘게 와주신다고 해서,
무척 들뜨는 마음으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접 뵈기 전에 먼저 지면으로 인사를 드리기 되네요.
강연 때에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작은 새 이야기”를 들려 주실텐데요,
꼭 새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선생님께 궁금한 것들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통의 '이야기책'과는 또 다른 의미로 '정보·과학책'은 자료조사에서부터 체험
과 관찰의 시간이 필수적이기에 책 한 권을 만드는 데 굉장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처럼 '재미있는' 구성까지 구상하시려면 더욱 그렇지 않을까 싶
구요, 실제로 책 한권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어떤 절차들
을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여름이의 개울 관찰 일기』는 좀 오래 걸렸어요, 사계절을 다 담으려면 1년 동안
관찰하는 게 필수 조건이죠, 처음에는 저와 제 가족이 2년 정도 취미 삼아 관찰
을 했고, 책을 만들기로 결정한 뒤에는 그림 그리는 분이랑 함께 1년을 관찰했어
요, 제가 글을 완성하는 데 3개월 정도 걸렸고 그림에 대략 6개월 정도 걸렸죠,
보통 책이 나오는 과정은 이래요, 작가가 글을 쓰면 편집자와 의논을 거쳐서 최
종 글을 완성하지요, 그 다음에 화가에게 글을 주고 구상할 시간을 줍니다. 그러
면 보통 화가가 작은 스케치를 하지요, 스케치를 가지고 작가, 화가, 편집자가 모
여서 다시 의논을 하고 나서 본 그림을 그립니다. 참 한 사람이 빠졌네요, 디자
이너도 의논 과정에 참여를 하죠, 그림이 완성되면 실무적인 제작 과정을 거쳐서
책이 나오는 거죠.

특히 정보·과학책은 '그림'에 따라 인상이 매우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책을 만드는 중에 그림작가 선생님과 많은 협의를 가쳤기에 선생님의 책엔 다양
한 그림이 실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림작가 선생님께 어떤 주문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논픽션 책에서 그림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확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그치면 재미가 없겠죠, 저는 정확성과 더불어 나름의
느낌과 유머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여름이의 개울 관찰 일기』를 그린 김재
환 선생님은 저랑 관찰을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자연의 느낌에 대해
서 잘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주문할 게 없었죠, 『물은 어디서 왔을까?』는 남주
현 선생님이 그렸는데, 저는 내용 전달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
죠, 물의 세 형태, 즉 고체, 액체, 기체를 나타내는 캐릭터를 활용하자는 건 남주
현 선생님의 의견이었죠, 저는 특히 이 책 그림의 유머가 마음에 들어요, 억지스
럽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으면서 내용을 잘 표현하는 동시에 보는 사람이 웃을
수 있게 하는 유머가 있지요

작가 소개란을 보면 “끊임없이 솟아나는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채워 줄 논픽션
책을 만들고 싶다”는 글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책 편집자로 일하신 이력도 있으
시구요, 어린이책의 종류도 아주 광범위한데, 특별히 '과학'이라 분류되는 주제
의 책 작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과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어요, 편집자 일을 할 때 주어진 일이 과학 그림책을 만
드는 거였죠, 그 일을 하다 보니 저와 잘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색약
이에요, 빨강과 초록을 잘 구분하지 못하죠, 지금은 달라졌지만 제가 대학을 갈
때만 해도 색약이 있으면 과학이나 공학 분야 전공을 선택할 수 없었어요, 자연
히 고등학교 때 인문계열을 선택했고 대학을 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과학 그림책
을 만들면서 제 안에 숨어 있던 과학에 대한 흥미가 다시 살아났을 거예요, 아릴
때 망가진 시계 같은 걸 뜯어서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던 걸 보면 저한테 원래
부터 과학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지금은 과학책을 소설책만큼이나
즐겁게 보고 있어요



어린시절 공룡책과 자동차 관련책을 신기하고 재미있어 아주 즐겁게 읽다가도, 어느새 정규교육을 받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과학'을 하나의 과목으로밖에 여기지 않게 되는 듯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공부나 과제가 되면 재미가 없기 마련이죠. 사람들은 보통 과학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라고 여기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특별하게 똑똑한 천재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멀리 치워버리는 거죠. 그런데 자는 과학이 자신과 주변 세계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과학이 나와 아주 관련이 깊은 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누구나 과학적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거나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실제로 지금까지 발견된 티라노사우루스 화석 가운데 가장 완벽한 것은 지역 주민이 산책하다 발견한 거예요. 『여름이의 개울 관찰 일기』를 보면, 꼬마물떼새가 바로 땅을 굴러서 먹이를 잡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런 저하고 감재환 선생님만 본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발견을 한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과학책이 있다면 어린이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겠죠.

소위 '정보·과학책'이라 분류되는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부모님들도 이쪽 책을 읽히기 위해 무척 고심하시거든요. 조금 말을 바꿔,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읽히면 좋을까요?
 그리고, 어린이 친구들이 선생님의 책을 어떻게 읽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으신가요?

사실 재미로 치자면 이야기책이 더 재미있죠. 저도 그렇고요.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이 세상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없다' 요즘 어린이들한테는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영어도 잘 해야죠. 수학도 잘 해야 하고, 음악도 잘 해야 하고.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가 다른 아이에게 뒤처질까 늘 걱정이죠. 그래서 과학책도 내 아이가 꼭 알아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는 거죠.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알아야 할 것이고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과학책이 재미있는 것이 되기 어렵죠.
 저의 책을 읽는 어린이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새 이름을 다 잊어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단, 자연의 친구들을 만나는 게 참 즐거운 일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는 논픽션에 대한 이론서에서 본 글을 전하고 싶어요. "어린이는 채워야 할 그릇이 아니라, 타올리아 할 불꽃이다" 지식을 채우기 보다는 새로운 것을 알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하는 책이 좋은 책이라는 말이랍니다.

신동경 선생님은요~

1968년 춘천에서 태어나셨고, 어린이 책을 만드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시다가 지금은 작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꿈임없이 솟아나는 어린이

들의 호기심을 채워 줄 논픽션 책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은 재미있는 과학책을 많이 만드셨는데요, 『물은 어디서 왔을까?』(천둥거인), 『여름이의 개울 관찰 일기』(천둥거인), 『누가 트리케라톱스를 잡아 먹었을까?』(웅진닷컴) 등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사람들한테만 좋은 무언가를 만든다고 계속해서 자연 친구들의 보급자리를 빼앗는 일을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친구들에게 적용하거나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어마무시한 포크레인으로 순식간에 땅을 휘젓고 반듯반듯한 콘크리트 길을 만들어버리는 건 폭력과 같다고 하시구요.

어린이 친구들도 선생님이 만든 책 재미있게 읽고 자연의 친구들과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해 곰곰이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초등학교 시절엔 어떤 책을 읽고 지라셨나요? 꼭 책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선생님께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어떤 특별한 기억이나 체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 책을 별로 읽지 못했어요. 집에 책이 많지 않았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기암십같은 과도 루팡 사티즈였어요. 책보다는 골목길에서 놀았던 일이 훨씬 기억에 남아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다 가방을 던져 놓고 바로 뛰어나갔죠.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으면, 이집 저집에서 엄마들이 저녁밥 먹으라고 부르러 나오곤 했죠. 지금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서 그런 골목을 빼앗았다는 게 정말 미안할 뿐입니다.

어디에도 많은 '여름이'들이 있을 텐데요. 잠재적인 여름이를 위해 『여름이의 계절 관찰 일기』와 같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요령이랄까요, '새'가 아니어도 무엇부터 어떻게 기록하면 좋은지 도움을 주세요.

한 곳에 자주 가고, 오랫동안 관찰해 보세요. 쉽게 갈 수 있는 곳을 정해 놓고 자주 가 보세요. 그렇게 하면 계절에 따라서 그곳의 생물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오래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저 한 번 훑어보면 무엇 무엇이 있다는 것밖에는 알 수 없지요. 나뭇잎을 먹는 애벌레를 만나거든 그 녀석이 어떻게 나뭇잎을 먹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럼 그 녀석이 분명히 재미있는 걸 보여 줄 거예요. 그럼,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자기의 비밀이 되는 거지요. 기록하는 일이 좀 번거로우면 그냥 하지 말고 지켜보기만 하세요.

혹시 선생님께서 지금 제일 관심을 갖는 대상은 무엇인지, 다음 작품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전히 새에 관심이 많지만 새에 관한 책을 구상하고 있지는 않아요. 진화에 대한 책을 꼭 쓰고 싶어요. 다윈의 진화론은 정말 위대한 발견이에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요. 제가 진화론을 공부하면서 느낀 걸 어린이들과 나누고 싶어요.

저희 도서관에 오시기 전에 장유도서관에 대한 막연한 인상은 어떠신지, 그 인상이 실제 방문 후 어떻게 달라지실지도 궁금합니다.

장유도서관에서 계시는 분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하실 것 같아요. 동네 사랑방을 닮았을 것 같기도 하고 옛날 골목길의 느낌일 것도 같네요.





사서 선생님 눈에 들어온 책

“지금 당신의 아이는 행복한가요?”

『아이가 원하는 사랑을 주세요』 김성은 글, 북스캔(2009)



‘아이로 인해 인생을 다시 살게 되었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거창하지 않더라도 자기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요즘은 집집마다 아이도 하나들 밖에 없고 육아에 대한 관심도 경쟁적으로 높아져 서점엔 자녀교육서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한 고민이나 노하우를 나누는 인터넷 카페도 성황이다. 그런데도 인지 혹은 정서장애를 가졌거나 ADHD 등의 질병을 앓으며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건 아이러니하다. 어쩌서일까? 부모가 무관심하거나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일까?

『아이가 원하는 사랑을 주세요』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현재 한국아동상담센터의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고, 이미 여러 권의 관련 저서를 펴낸 전문가이다. 하지만 이 책을 권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저자의 화려한 이력보다도 모두가 모르지 않지만 정작 실천하기는 어려운 자녀교육의 ‘기본’에 대해 아주 조목조목 잘 짚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대부분의 자녀교육서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 만들기’, ‘우리아이 명문대 보내기’ 등 부모가 바라는 이상적인 틀에 맞도록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요령을 알려주는 것들이다. 그에 반해 이 책은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지금 현재의 아이 모습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아이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며 각각의 재능과 성향이 모두 다른 고유한 인격체이다. 부모의 사랑과 양육이 필요한 존재라는 점은 모든 아이에게 공통적이지만, 표현의 방식이나 수용의 정도는 개인차가 있기에 같은 방식으로 양육하더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는 그저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하면 좋을 것 같다가도 점점 아이가 자리면서 함께 커지는 부모의 욕심으로 인해 내 아이가 조금씩 더 불행해지고 있지 않은지 책을 읽으며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육아서나 모범적인 아이를 키우는 주변 사람들이 소개하는 부모를 숭고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기준과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이나 바람을 내려두고, 내 아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를 알기 위해 한 번 더 눈 맞추고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한결같이 아이에게 눈을 떼지 않으며 아이가 좋아하고 원하는 사랑을 일관되게 준다면 아이 스스로 충분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믿는 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일까? 함께 새기고픈 글 한편을 옮기며 책 소개를 마칠까 한다.

“랑랑벌에서 만난 내친구 때때롱 이야기”

『랑랑벌 때때롱』 권정생 글, 보리(2008)



서가 정리 중에 접했던 책, 재미있는 제목이어서 몇 번 훑어보려 “랑랑벌 때때롱” 말해보다가 내용이 궁금해서 읽어보게 되었다. 권정생 선생님의 장편동화였다. 마음에 목착한 파장을 일으키는 권정생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믿음이 생겼다.

권정생 선생님은 1937년에 태어나 2007년 5월에 돌아가실 때까지 어린이를 위한 동화를 쓰신 분으로, 어린이 문학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아주 큰 동화작가이다. 선생님 작품으로는 그림책 『오소리네 집 꽃밭』, 『곰이와 오피돌이 아저씨』와 소년소설 『점득이네』, 『초가집이 있던 마을』 등이 있는데 특히 『강아지똥』과 『몽실언니』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많이 읽히는 작품이기도하다. 『랑랑벌 때때롱』은 얼마 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선생님께서 어린이집지 『개똥이네 놀이터』에 연재하신 마지막 작품이라고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지구별에 사는 새달이와 마달이가 랑랑벌에 있는 때때롱과 만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는 전개된다. 새달이와 마달이는 랑랑벌에 사는 때때롱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 그곳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그러나 사실 과거 500년 전 랑랑벌은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하여 왔지만
당신에게서 온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신과 함께 있으나
당신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줄 수 있으나
생각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생각이 있으니까요

당신은 그들의 몸을 가둘 수는 있어도
마음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미래의 집’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곳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꿈속에서조차도
당신이 그들처럼 되고자 해도 좋으나
그들을 당신처럼 만들고자 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은 과거로 가는 것도 아니며
어제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중 “아이들에 대하여”

윤인영 (1층 어린이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모든 것이 기계화, 자동화되어 인간미 없는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고 끔찍한지 겪은 후 다시 어릴사리 자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500년 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자 하는 미래와 과거의 랑랑벌의 모습이 비슷한 것은 과학의 발달로 인간이 소외되는 세상이 결코 우리의 지향점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소재의 참신성이다. 이미 다양한 영화와 SF만화, 어린이소설을 통해 무분별한 과학의 발전이 초래하는 무서운 재앙의 신호를 여러 차례 본 적 있기에 심각한 이야기를 오히려 덩덤하게 받아들여온 한다. 하지만, 명량한 주인공들의 이름만큼이나 미래를 낙관하고 현재를 긍정하는 작가 선생님의 세계관은 무척 따뜻하고 든든하다. 서로서 사랑하는 세상,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 그래서 모두가 살고 싶은 세상이 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할지 고민하게 되는 책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책을 읽고 싶다. 아주 평이한 말이기도 하지만 진리일 수 있는 과학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 수단일 수는 있어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새삼스레 짚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송희정 (지하 1층 유아실)





삼도리 이야기

“삼도리와 개미선생 (1)”

옛날 옛날에 삼도리가 살았어요.
키 크고 얼굴 잘생기고
마음씨도 착한 삼도리에게
딱 하나 흠이 있었으니...

고슴 그거 좀
불쌍한걸.
음...

좋아! 네 머리로
는 한자는 어려형
운 것 같으니 형
님이 좋은 글을
가르쳐주마.

정말?

바로 머리가 남들보다 조금
모자라는 바보였다는 것!
아이들에게 제 이름 석자도
못 쓰는 바보라고 놀림을
받곤 했어요

난 왜 내
이름 석
자도 모
를까.

자 내 이름이 뭐냐?
개미지? 개미의 ‘ㄱ’
내 이름은 ‘ㄱ’ 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날
아다니는 나비는

그리고 네 뒤에 있
는 다람쥐는 ‘ㄷ’
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또... 다음은
‘ㄴ’, ‘ㅁ’

슬퍼진 삼도리는 뒷산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으악
어떤놈이야
눈물로 강을
만든 녀석이!

쉽지?
삼도라 네
이름은 필로
시작하지?

‘ㅅ’
응 고마워
너무 쉽다.

잘했어
합격이야.

은석아! 죽을뻔했
잖아!
죽었으면 책임질
래!

그럼
잘있어 개미야!

미안...

대체 왜 그
렇게 울고있는
게냐?

그게 사실은
...

엄마 엄마
오늘 뒷산에
서 개미한테
글을 배웠어
요.

계속.

글: 이영수 그림: 이종형 (신라대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Samdori Story



우리 동네 옛 이야기

중봉사와 장군수 이야기

이병관 (전 장유도서관장)

옛날 장유면 삼문리 능동에 중봉사라는 큰절이 있었답니다.
거처하는 스님이 수백 명이었으며 절 앞쪽엔 술을 파는 상점이 서른 곳 가까이 즐비했다고요.
아침저녁으로 절에서 밥을 짓는 쌀뜨물이 시냇물을 따라 멀리 무계 다리까지 허영게 떠내려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 뒷쪽엔 산삼이 많았으며 마시면 끝없이 힘이 솟는 장군수라는 약수터도 있었답니다.
중봉사 스님들은 날마다 산삼을 먹고 장군수를 마시니 다들 힘이 장시여서 걸핏하면 동네까지 내려와 난폭한 행동을 하고
힘자랑을 하며 사람들을 괴롭히다 마침내 천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도사가 중봉사 방마다 독한 빈대를 풀어 놓은 것입니다.
빈대는 수없이 번식하여 스님들을 밤낮 괴롭혀 스님들은 결국 다 도망가고 절은 폐사가 되어 버렸다고 하네요.
스님들이 물마시던 은잔을 두고 갔으므로 그 후로 능동계곡에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딸랑딸랑 은잔 부딪히는 소리가 산 아래까지
들리곤 했대요. 혹시 지금도 능동계곡의 은잔소리가 들리는지 귀 기울여 보지 않을까요?



중봉사

신나는 글나라 놀이터



『고맙습니다 선생님』을 읽고

정지민 (삼문초 3-3)

나는 오늘 처음으로 책을 잘 읽었다. 풀커 선생님은 나한테 칭찬을 해주셨다. 나는 나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내가 책을 못 읽을 때 애들이 '빙어리'라고 놀렸지만 풀커 선생님은 나한테 자신감을 주셨다. 그리고 풀커 선생님은 힘내라고 말하니 난 기분이 너무 좋았다. 내가 책읽는 모습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여줘서 너무 슬프다. 선생님, 풀커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시절'을 보고

문서영 (부곡초 5-4)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비디오를 봤다. 내가 가장 감동받은 장면은 남자 아이가 꽃신 한 짝을 잃어버리고 남은 꽃신을 들고 울타리 옆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다. 내가 만약 그 아이라면 그 때 얼마나 슬픈지 말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난해서 꽃신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이 비디오를 소개 해주고 싶은 아이는 요즘 아이이다. 요즘 아이들은 물건이 넘쳐나서 물건의 소중함을 잘 모른다.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려도 찾지 않는다. 그리고 새 것을 쓴다. 학용품이 많아서 학용품을 선물 받아도 기뻐하지 않고 새 것도 많이 버리는 아이들도 많다. 이런 아이들이 이 비디오를 보고 꽃신 하나에 울고 웃는 옛 아이들의 모습을 알았으면 좋겠다.



비

강다빈 (덕성초 4-3)

주룩주룩
비가 멈추지 않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걸까..

맞으면 차갑고
옆구리 툭 맞으면 춥고
춥다춥다 생각하니 더 추워진다.

하늘에 비는 주룩주룩
늘고 싶어도 못논다
비가 오니까



『화요일의 두꺼비』를 읽고

강다은 (덕성초 3-4)

내가 조지라면 워터와 맛있는 차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며 친구가 되어 주었으니 나도 마음이 바뀔 것 같아 주었을 것이다. 또 난 워터에게 내 생각을 말하여 탈출하지 않아도 되며 고모집에 데려다 줄 거라고도 말하였을 것이다.

조지는 워터가 좋아하는 노란주 열매차를 구해 같이 마시고 싶었는데 결국 말을 안하고 혼자 나가서 구하려다 위험한 상황에 이르고 차도 못 먹고 말았다. 나는 이 일을 통하여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야 친구가 오해하지 않겠지!

봄이 왔어요



김경은 (덕성초 4-4)

봄 봄 봄 봄이 오네요
푸릇푸릇 새싹 돋네

산들산들 봄바람
내 코를 간질간질

따스한 햇빛 받고
눈이 부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네요

예쁜 나비
활기있는 나비

동네 곤충들이
모여 드네요

봄 봄 봄 봄이 왔어요

봄비



박지민 (금산초 3-1)

톡 톡 톡
내리는 봄비

땅에 살쭉살쭉
내려앉는다

댕글댕글
귀여운 봄비
톡톡 쏟아진다

주룩 주룩
내리는 봄비

우리 동생이 동자스님이 되었어요

박주현 (능동초 1-3)



오늘 엄마는 동생을 데리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뽀뽀 밀어 주었어요. 엄마는 우리 동생을 보고 동자스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동생이 좀 더 귀여워진 것 같아요. 난 동생이 귀여워서 노래를 불러 주었어요. 그 노래 제목은 놀이터, 꼬끼리 미끄럼틀입니다. 동생은 동자스님처럼 귀여지만 머리가 뽀뽀해서 내 얼굴을 문지르면 따가워요. 꼭 아빠 수염처럼요. 엄마는 동생이 머리를 밀 때 불편해서 울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동생은 씩씩해서 조금만 울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멋쟁이가 될 테니까요. 뽀뽀머리로 나를 아프게 하지만 난 내 동생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요.

자기 소개

장예은 (능동초 1-5)



안녕하세요. 저는 장예은입니다. 제 이름의 뜻은 예수님의 은혜라는 뜻이고 고모부께서 지어 주셨습니다. 저는 장유대성선교원에서 3년을 다녔습니다. 저희 가족은 4명입니다. 엄마, 아빠, 동생 그리고 저입니다. 좋아하는 꽃은 봄꽃 중에 진달래를 제일 좋아하고 음식은 샐러드를 좋아하는데 양상추를 먹을 때 아삭아삭 소리 나는 게 재미있어 좋아합니다. 재미있게 봤던 책은 나라별과인데 여러 나라들에 관심이 많아 엄마랑 아빠랑 퀴즈나기도 하고 재미있습니다. 장래희망은 의사이고 아프리카에 사는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의사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머리 색깔이 두 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갈색인데 햇빛 나는 곳에서 보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미용실에 가면 염색했다고 물어봅니다. 2008년 크리스마스 때 '헬로 키티' 진찰대를 받았습니. 너무나 신이 났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장난감보다 더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장난감은 안 주신다고 합니다.

새싹

박지선 (덕성초 4-3)



새싹이 있었어요. 그 새싹은 햇빛을 받으면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년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예쁜 새싹이 있구나. 이 새싹을 집에 가져가면 정말 멋진 거야하며 소년은 새싹을 집으로 가져갔어요. 새싹은 너무나 슬펐어요. 지렁이 친구와 해, 구름, 바람친구들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새싹은 너무 슬퍼서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시들어 버렸어요. 소년은 새싹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새싹을 버렸어요. 하지만 새싹은 소년의 그 행동 덕분에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새싹은 그 뒤에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예쁜 꽃이 되었습니다.



두꺼운 책도 재미가 있다!

김세현 (월산초 5-5)

요즘 친구들은 두꺼운 책을 읽지 않는다. 왜냐하면 책의 두께만 보고 어렵고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읽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책의 두께만 보고 어렵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대한다. 하지만 이 내용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

내가 읽은 책 중 『여왕의 시대』는 558쪽이나 되고 글씨도 작았다. 세계 각국의 여왕들의 일생이 자세히 나타나 있는 책이었다. 이 책을 읽고 여왕들의 생활이 언제나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꺼운 책을 내가 다 읽었다는 뿌듯함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물의 비밀』, 『거위치기 프린세스』, 『나니아 연대기』, 『센추리 게임』, 『타라 덩컨』과 같은 책들이 두껍지만 재미있는 상상의 나라로 갈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두꺼운 책 중 이처럼 재미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두꺼운 책 모두가 어렵고 재미가 없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친구들도 내가 읽은 재미있는 책들을 많이 읽어 보았으면 좋겠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말자

김가영 (월산초 6-4)

우연히 그림책 한권을 보게 되었다. 그 책 제목은 『사라 버스를 타다』였다. 이 책을 간단히 소개 하자면 흑인들과 백인들의 차별이 있었던 때였다. 이 책의 주인공 사라는 흑인이다. 어느 날 사라가 버스를 탔는데, 앞자리엔 백인들이 뒷자리엔 흑인들이 타고 있었다.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있었던 그 시절엔 버스를 그렇게 탔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을 몰랐던 사라가 앞쪽 자리를 궁금해 하며 일어나는 소동 이야기였다. 나는 이 책을 읽고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나도 흑인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져 본 적이 있다. 지나가는 흑인들을 보았을 때 피부색이 너무 가깝게 보여서 웬지 무섭고 더러워 보인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괜히 피하게 되고 꺼려졌다. 하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게임도 하며 공부해보니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무 좋았다. 흑인과 백인 그리고 우리는 피부 색깔만 다를 뿐 다 같은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사라가 살았던 그 시절이 지금은 부끄러운 과거가 되어가는 지금, 미국은 대통령을 흑인대통령으로 뽑았다. 지금도 피부색에 대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다.



팝콘

김태훈 (삼문초 4-4)

팝콘아,
몰래 튀다고 누가 모를 줄 아나?
톡톡 소리가 다 나는데

팝콘아,
도망가고 싶제?
니가 도망가고 싶으면
내 뺏속으로 가라.

팝콘
나는 맛있데이.



책

이준혁 (주석초 4-3)

조그마한 몸속에
여러 생각이 모여 있다.

내 몸은 주인이
자주 살피려나.

그리고 내 옆에는
친구들이 많다.

나를 소중히
생각하는 주인

이런 주인을 만난 것이
정말 기쁘다



『미셸처럼 공부하고 오바마처럼 도전하라』를 읽고

강민지 (월산초 6-6)

저는 『미셸처럼 공부하고 오바마처럼 도전하라』라는 책을 엄마께서 읽어보라고 추천하셔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미셸과 오바마에 대한 책이며 이 이야기는 미국대통령인 오바마가 겪었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오바마는 어릴 때 흑인이라는 편견을 받아서 대통령이라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바마의 꿈은 대통령이 만은 아니고 꿈을 위해 공동체 조직가라는 꿈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 뒤 미셸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 미셸도 오바마처럼 공부를 열심히하고 목표를 가지는데 그꿈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원하던 프린스턴대학에 당당히 합격해서 노력하면 이루어 진다는것을 느낍니다. 미셸은 변호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게한 사람중 한사람이 미셸입니다. 오바마를 대통령 후보가 되게 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전 이 책을 읽고 오바마와 미셸처럼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흑인 차별을 이겨내고 노력한 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흑인이면 이 편견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공부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하였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편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책이 노력하고 누구든 꿈을 가지면 이루어 질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으며 저는 이 책을 누구에게나 추천하고 싶고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땅파니 돈 나오는데?

허나영 (월산초 1-3)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으니 내방이 갖고 싶다고 엄마께 말했다.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세 식구 저녁 먹는 시간... 엄마가 아빠께 나의 침대랑 옷장, 피아노를 사야한다고 의논하셨다. 말씀을 끝내시곤 아빠께서 나에게 "아이구~ 우리 나영이 침대, 옷장, 피아노 다 사려면 아빠가 돈 많이 벌어야겠네~" 하셨다. 이어 내가 "밖에서 돈 가져오면 되지~!!" 했더니 아빠께서 "이놈아 땅을 파봐라 심원씨리라도 나오나~!!" 하셨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땅파니 돈 나오던데...? 오늘 놀이터에서 예남아랑 놀때 땅파더니 100원이 나왔어!!" 엄마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물으셨다. 난 "다시 물어봤지~!!" 라고 대답했더니 엄마, 아빠께서 크게 웃으셨다. 왜? 웃으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신나는 글나라 놀이터”는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장유도서관 홈페이지 “플러깅” 방에 들려 주제와 분량에 관계없는 자유로운 글을 남겨주세요.



“돈나물·두부 버섯탕수”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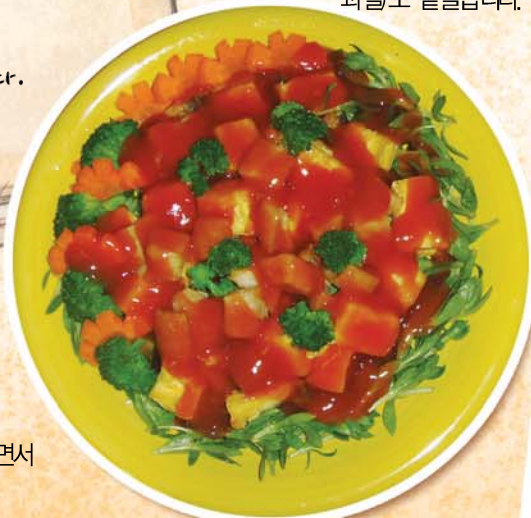
* 엄마표 사랑 듬뿍 담긴 재료 *

- 1. 돈나물 200g 2. 두부 1모 3. 새송이버섯 3개 4. 브로콜리 1개
- 5. 당근 1개 6. 고구마가루 (갈분가루), 식초, 설탕, 토마토케첩, 진간장 약간

* 엄마표 요리순서 *

1. 두부와 버섯은 1.5cm크기로 썰어 소금을 약간 뿌린 후 고구마가루를 묻혀 둡니다.
2. 돈나물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 놓습니다.
3. 브로콜리는 끓는 소금물에 살짝 데쳐내고 찬물에 씻어 준비해 둡니다.
4. 당근은 편으로 썰어서 준비합니다.
5. 탕수소스를 만들기 위해 찬물에 고구마가루를 풀어서 약불에 저어가면서 끓이다, 끓기 시작하면 설탕, 식초, 토마토케첩을 넣어 저어가면서 걸쭉하지 않을 정도로 끓입니다. 소금과 진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소스를 식혀둡니다.
6. 고구마가루를 묻혀 놓은 두부와 버섯을 기름에 튀긴 후 식혀 둡니다. (튀기는 대신 후라이팬에 살짝 구워도 됩니다)
7. 데쳐 둔 돈나물을 접시에 담고 두부와 버섯을 올리면서 브로콜리와 당근(기호에 맞게 과일도 곁들입니다. 그 위에 탕수소스를 뿌리면 요리가 완성됩니다.

환절기 날씨 탓에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봄에는 새 계절을 맞아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부지런을 펴어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때일수록 잘 챙겨 드셔야 하는데 감기나 피로함 때문에 입맛 없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봄나물 중에 씻기만 해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돈나물과 단백질이 풍부한 버섯, 두부를 이용한 탕수요리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모두 쉽게 만들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데다가 칼로리는 적고 영양은 듬뿍 담긴 재료입니다.



* 엄마표 한마디 *

봄에는 아이들의 활동량이 많아지고 신진대사가 늘어나면서 에너지 소모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봄철 아이들이 제일 많이 자란다는 말도 있지요. 봄꽃만큼 제철을 맞은 몸에 좋은 봄나물로 보약 못지않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보세요. 아이들이 봄나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기있는 메뉴의 재료로 활용하는 센스 있는 엄마 요리사가 되길 바랄게요.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학교와 학원을 번갈아 다니느라 지친 우리 아이들과 불경기에 직장생활에 매진하느라 기운 빠진 아빠들을 위해 봄꽃처럼 예쁜 요리 한 접시 준비해 보면 어떨까요?



임미연 (참새방앗간 요리사)



위대한 발견을 낳은 해결의 공간 도서관!!!

이번 호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매회 '도서관' 이 나오는 영화를 한편씩 소개하고 영화마다 도서관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린이 친구들이 태어나기 전이거나 아주 어렸을 때 만들어진 미국영화 "로렌조 오일"로 첫 테이프를 끊어보겠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오돈 부부와 아들 로렌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로렌조가 5살 되던 해 로렌조는 원인도 치료법도 모르는 희귀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곧 죽게 된다는 말과 함께요. 하지만 오돈 부부는 절망하지 않고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매일같이 도서관을 찾아 의학서적과 씨름하며 끊임없이 연구하여 마침내 아들을 낳게 하는 약을 만들어 냅니다. 그 약의 이름이 바로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로렌조 오일'이지요. 의학지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오돈 부부가 서툰 실험과 그들에게 회의적인 전문가들과의 충돌도 마다않고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 하나만으로 의료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세우는 과정은 무척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자식에 대한 굳건한 사랑과 결의만큼이나 감동적인 또 하나의 사실은, 그들에게 너무나 절실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공간이 도서관이라는 것입니다. 영화에는 생화학이나 의학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오돈 부부가 의롭게 최신 기사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 자기 일처럼 성실히 찾아주는 사서가 나옵니다. 사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어도, 각 전문분야별로 어떤 자료가 있는지 그 자료를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죠. 망라적인 정보와 지식을 누군가한테 필요한 형태로 정돈하고 꿰어주는 사서의 역할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친구들도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지식인에게만 묻지 말고 도서관의 사서 선생님을 찾아와보세요!



[로렌조 오일] (1993) 조지 밀러 감독 닉 놀테, 수잔 서랜든 주연

김은엽 (2층 인문자연과학실)



도서관의 늦가을 · 겨울 이야기



김미혜 선생님이 들려주는 자연 이야기



자연이야기가 있는 원화 전시회



『해치와 괴물 4형제』 원화 전시



그림책으로 세상 읽기



겨울 독서교실 예술의 바다로 풍덩!

김미혜 선생님이 들려주는 자연 이야기 - 08.11.8

『나비를 따라갔어요』와 『우리 집에 직박구리가 왔어요』란 책을 쓰신 김미혜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이 곤충과 새 혹은 나무와 꽃과 친하게 지내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친구가 되기 위해선 사람과 마찬가지로 먼저 마음을 열고 자주 만나야 한다는 걸 알았어.

자연이야기가 있는 원화 전시회 - 08.11.1~11.16

『나비를 따라갔어요』와 『우리 집에 직박구리가 왔어요』의 그림작가 이광익 선생님의 원화를 구경할 수 있는 전시회였어. 발랄한 수채화 느낌의 그림 속 나비와 사마귀, 자벌레, 직박구리 등등. 모두 얼마나 귀엽고 유머러스하기까지 한지.. 재미있게 보고 있으니 함께 놀러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니까!

『해치와 괴물 4형제』 원화 전시 - 08.11.19~11.28

세상이 처음 생겼을 때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해치와 괴물 사형제』의 원화를 볼 수 있었어. 책으로만 볼 때보다 훨씬 실감나게 해치의 옹망함이 느껴지더라. 참, 이 그림들은 2층 자료실 액자에서도 본 적 있는데 해치와 각 괴물들의 캐릭터도 이제 더 잘 이해가 되더라구.

그림책으로 세상 읽기 - 08.8~12

여름부터 가을 지나 겨울까지 밤마다 그림책으로 세상을 읽어보는 재미있는 시간이 있었더라. 매 달 정해진 주제별로 재미있는 책들을 함께 읽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몰라 특히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한 날에는 평소 애 잘 몰랐던 엄마 생각도 알 수 있어 놀랍고 특별한 시간이었어!

겨울 독서교실 : 예술의 바다로 풍덩!! - 09.1.12~1.16

이번 독서교실 기간엔 “예술의 바다로 풍덩!” 빠져보는 이색적인 수업이 많았어. 그림과 음악, 영화, 또 디자인까지 사서 선생님들이 다양한 자료를 보여주셔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얼마나 재미있었다구. 마지막 날에는 클레이아크미술관에 가서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을 자기로 구워보는 체험도 했었는데, 그때 만든 재떨이는 우리 아빠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쓰고 계시기도 해.

Spring



도서관의 봄 이야기

● 1학기 정규프로그램 안내

- <방과후 도서관학교> : 초등학교 3·4학년, 매 주 수요일, 오후 4시~6시, 동화사랑방
- <세계시민학교> : 초등학교 3·4학년,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4시~6시, 동화사랑방
- <어린이독서회> : 초등학교 6학년, 매 달 둘째·넷째 놀토, 오전 10시~12시, 동화사랑방
- <청소년독서회> : 중학교 1·2학년, 매 달 첫째·셋째 토요일, 오후 2시~4시, 동화사랑방
- <고등부 독서치료 모임> : 장유고 1·2학년, 매 달 셋째주 수요일, 저녁 7시~9시, 장유고도서관
- <북스타트데이> : 매 주 목요일(8주간), 10시 반~11시 반, 유아실
- <일일도서관 체험교실> : 초등부·유아부, 각각 어린이실·유아실 신청 상담 후 운영

● 부모님을 위한 프로그램

- <결혼이주여성 동아리> :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동화사랑방
- <주부를 위한 독서치료 모임> : 매 주 금요일 오전 10시 반~1시, 동화사랑방
- <주부와 직장인을 위한 문예창작 교실> : 매 주 금요일 저녁 7시~9시, 시청각실

● '도서관 주간' 행사

- 신동경 선생님 초청 강연회(4/11, 시청각실) : 취재노트를 활용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작은 새 이야기'란 주제의 강연
- '옛날 이야기' 가 있는 원화 전시회 (4/15~4/30, 지하 1층 전시실) : 옛이야기책 『오러와 오도』 원화 17점 & 옛이야기책 전시
- '옛이야기 고개 넘기' (4/26, 지하1층 전시실) : 전시책 읽어주기 & 옛날이야기 들려주기
- 시각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봄맞이 영화 나들이" (4/15 공연장) : 경남점자도서관 회원들의 도서관 나들이 & 봉사자와 함께 영화 『바보』 관람
- 가족동극 "엄마를 부탁해" (4/17, 공연장) : 2009년 김해의 책 『엄마를 부탁해』를 극화한 동극 상연
- "책이랑 놀자" 전시 및 체험 (4/17~4/18, 도서관 앞마당) : 좋은 그림책 전시 및 책놀이 독후활동 북아트 체험



Library Story

내가 만드는 그림책

★ 색칠해 보아요 ★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 울프 닐슨 글 · 에바 에릭손 그림, 사공주니어(2008)

"포기" 5호는 2009년 9월 독서의 달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수다쟁이 책마녀의 괴짜 독서 골든벨

1. 너희들은 죽어서 무엇이 되고 싶니? 남들 따라 바다나 나무, 불꽃, 바람, 새, 흙이 되고 싶다는 말하지 말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연락 줘 왜 그런 것이 되고 싶은지도 꼭 밝히고 말아야.
2. 가족들에게도 물어봐 죽어서 뭐가 되고 싶은지 물론 뜬금없이 이상한 질문한다며 꿀밤 한 대 얻어맞을 수 있으니 자세롭게 접근해서 보고서 작성해봐. 일기 쓸 거리 없을 때 가족들이 죽은 후 되고 싶어 하는 것과 그 이유에 대해 적어봐도 괜찮겠지.
3. 혹시 유령을 만난 적 있지? 없다면 『귀신새 우는 밤』(문학동네어린이)을 읽어 봐. 그런데 귀신과 유령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4. 내 앞에 유령 같은 것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5. 사체 본 적 있어? 죽은 동물은 본 적 있어? 어디서 어떻게 죽은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잘 정리해봐.
6. 사람의 일생동안 많은 행사를 치루잖아 결혼식이나 장례식 말고도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치루는지 조사해 봐
7. 옛날 유럽 사람들이 생각한 죽음과 우리나라 저승사자의 모습을 각각 그려 봐!
힌트 : 유럽 사람들은 죽음이 검은 망토에 커다란 낫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한데 우리나라 저승사자는 검은 것에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창백한 얼굴이지
8. 존엄사와 인락사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지? 혹시 이 두 가지의 단어의 뜻을 설명할 수 있는 똑똑한 친구가 있을까?
9. 코끼리들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인다고 해. 정말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을 알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리할 시간도 있고 자신의 의지대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으니 말아야. 요즘 잘 사는 법(월빙)과 함께 현대인들에게 큰 관심을 끄는 것이 있는데 뭘까?
10. 신문 구인 광고에 "고수입 초보 환경, 여행을 돕는 일"이라고 적혀 있는 이 직업은 무엇일까? 여행사 도우미는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돕는 일이야. 일본 영화인데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출발" 영어제목은 "굿바이" 이라고 지었는데. 영화에 힌트가 있으니 찾아 볼 것

정답없는 골든벨은 처음보지? 그래서 책마녀의 괴짜 독서골든벨이라고~

